



5번 레인

은소홀 글 | 노인경 그림 | 문학동네
초등 4학년 이상

책 소개

열세 살, 주 종목은 자유형. 강나루는 전국소년체전에서 메달을 척척 따내는, 명실상부한 한강초 수영부의 에이스입니다. 라이벌 김초희의 등장으로 '2등'을 상징하는 '5번 레인'에 서고부터, 나루의 마음속엔 의심과 불안, 걱정과 고민이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어떻게 지느냐가 이기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코치님의 말은 알쏭달쏭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마음으로 옮여름 전국 수영대회를 잘 치를 수 있을까요?

작가의 말

배 속의 수박 씨앗이 자랄까 봐 걱정하는 아이들, 물속을 날아다니는 시합장의 선수들, 그런 반짝이는 순간들을 마주할 때마다 나 혼자 보고 있기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내가 한 일은 마블링 물감처럼 물 위에 아름답게 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살짝 종이에 묻혀 본 것뿐이다. _은소홀

활동1 『5번 레인』을 읽기 전에

책의 앞표지를 살펴보세요. 책 속 배경(때와 곳), 등장인물, 줄거리나 분위기 등을 짐작할 수 있어요. 『5번 레인』 표지를 보고 책에 대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을 써 보세요.



활동2

수영부 아이들의 반짝이는 꿈

한한 불빛, 코가 뻥 뚫리는 시원한 냄새, 바닥의 타일이 훤히 비치는 투명한 물과 곧게 뻗은 레인 줄. 같은 수영장에 몸을 담그고 있지만 수영부 아이들은 앞날에 대해 제각기 다른 마음을 안고 있어요. 이들이 왜 수영을 하고 싶어 하는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잘 드러나는 구절이나 인상 깊은 대사를 찾아 적어 보세요.

인물	책 속 구절 (수영을 하는 까닭, 미래에 대한 고민 등)
강나루	
김초희	
정태양	
지승남	
강버들	
김사랑	“스타트 0.65초의 벽을 깰 수 있을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은 언젠가 이걸 '사랑의 스타트'라고 부르게 될 거야.”
박세찬	“복잡한 건 질색이야. 그래서 수영을 해. 처음부터 끝까지 앞으로만 가면 되는 게 좋아서.”
신동희	“난 언제든 맨발인 게 좋아. 세상의 신발들은 내 발을 담기에 그릇이 너무 작거든.”

- 나와 비슷한 생각이나 고민을 가지고 있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그 까닭은 무엇인가요?

- 한 인물을 골라 그가 나에게 진로 고민을 상담한다면 들려주고 싶은 말을 적어 보세요.

- 한 인물을 골라 그가 어른이 된 모습을 상상해 뒷이야기를 적어 보세요.

활동3

나만의 터치패드를 향해

나루는 수영이 자신의 전부라고 말해요. 여러분에게도 나루의 수영 같은 게 있나요? 여러분이 꿈꾸는 나는 어떤 모습인지,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꿈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무엇이 필요한지 등을 시간을 들여 생각해 보세요.

나루가 레인 끝에 섰다. 앞으로 몇 번이고 왕복해야 할 길이 보였다.

어떤 날은 쏜살같이 지나가고 어떤 날은 영 지루할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

지금 나루가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들은 전부 물속에 있었다. _본문에서

- 내가 꿈꾸는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정한 직업을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신기한 이야기를 수백 개나 알고 있는 유쾌한 할머니’ ‘옷을 신경 써서 잘 입는 패셔니스타’ ‘주말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 등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알아 가는 게 중요해요.)

- 지금 나에게 좋은 영향이나 자극을 주는 것은?

(주변 사람, 연예인, 운동선수, 역사적 인물뿐 아니라 동물, 물건, 장소, 책이나 영화 등 다양하게 적어 보세요.)

- 내가 가진 습관이나 버릇 중에서 꼭 고치고 싶은 것은?

- 힘들고 지칠 때 나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것은?

(사람, 힘이 되는 메시지, 나만의 부적, 특별한 추억 등 무엇이든 좋아요.)

나루와 태양이는 채팅에서 ‘같이 놀러 가자’라며 서로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표현해요. 또 나루는 초희의 수영복을 돌려주며 말로 다 못 할 만큼 미안한 마음을 편지에 담아 전하기도 해요. 힘들어하는 나루에게 태양이가 쪽지에 쓴 “난 항상 네 편이야. 혹시 네가 네 편이 아닐 때에도.”라는 말은 눈물이 날 만큼 고마운 마음이지요. 때때로 우리는 진짜 하고 싶은 말, 전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기에 적어 보세요. 비밀 채팅방이기 때문에 누구도 훔쳐보지 못해요. 내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연습이 될 거예요.

- _____ 와(과)의 비밀 채팅방에 입장하셨습니다.

(닉네임 가능)

안녕?

9:10

안녕! 오랜만이야!

9:11

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9:13

정말? 어떤 말일까 너무 궁금해.

9:15

있잖아,

9:40